

-(으)매

~하므로, ~이니

현대 한국어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문체로 이유를 나타냅니다. 짧고 무게감이 있으며, 거의 경전, 시, 공식 선언문에서만 쓰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매	하다 → 하매
받침 있음	-으매	있다 → 있으매
ㄹ 받침	-매	만들다 → 만들매
과거	-았/었으매	하였으매
혼동 주의	-(으)ㅁ에	있음에 — 명사 + 조사
현대어 대응 표현	-(으)므로	있으므로

■ 언제 쓰나요

받침 없는 어간에는 -매, 받침 있는 어간에는 -으매가 붙고, ㄹ 어간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: 만들매. 붙여 쓰며, 시제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: 하였으매.

이 표현은 이유를 나타냅니다. 역할은 -(으)므로와 똑같습니다: 뜻이 있으매 길이 열렸다.

명사형 -(으)ㅁ에와 혼동하지 마세요. 있으매는 연결 어미이고, 있음에는 명사형 있음에 조사가 붙은 것입니다. 발음은 비슷하지만 표기가 다릅니다.

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가운데 가장 예스러운 문체입니다. 고로보다, 은즉보다 오래되었습니다. 현대 글에서는 일부러 효과를 낼 때만 나타냅니다.

■ 예문

- 1 뜻이 있으매 길이 열리는 법이다.
- 2 밤이 깊으매 등불을 밝혔다.
- 3 약속을 하였으매 지키는 것이 도리다.
- 4 근본이 바르매 흔들림이 없다.
- 5 손수 만들매 그 값을 아는 것이다.
- 6 때가 이르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.

■ 비교

-(으)므로

현대어 대응 표현입니다. 므로는 표준적인 격식체이고, 매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층위에 속합니다.

뜻이 있으므로 (격식체) / 뜻이 있으매 (고전체)

-(으)ㄴ/는 고로

둘 다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고로는 한자어 故를 써서 고전적인 논증처럼 읽히고, 매는 고유어 어미로 경전이나 시처럼 읽힙니다.

그러한 고로 연기하였다. (논증) / 뜻이 있으매 길이 열렸다. (시)

-(으)ㅁ에
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있음에는 명사 있음에 조사가 붙은 것이고, 있으매는 연결 어미입니다. 소리는 같아도 다른 말입니다.

그가 있음에 감사한다. (그가 있다는 것에 감사) / 뜻이 있으매 길이 열린다. (뜻이 있으므로)

■ 주의

✗ 뜻이 있음에 길이 열렸다. — “뜻이 있었으므로”라는 의미로 쓴 경우

○ 뜻이 있으매 길이 열렸다.

있음에는 명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.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있으매입니다.

✗ 손수 만들으매 그 값을 안다.

○ 손수 만들매 그 값을 안다.

ㄹ로 끝나는 어간에는 으 없이 -매가 바로 붙습니다.

✗ 야, 배고프매 밥 먹자.

○ 야, 배고프니까 밥 먹자.

-(으)매는 고전적인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옛 글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